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10월 29일(월)에 배포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여성친화도시가 함께 해요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광주광역시에서 제4차 여성친화도시 포럼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10월 29일(월)


보도 날짜 : 2012년 10월 29일(월)

언론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10월 31일(수)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제4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제4차 여성친화도시포럼 개최



제4차
여성친화도시 포럼

- ☐ 일시 2012년 10월 31일(수) 14:00-17:30
- ☐ 장소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대강당
- ☐ 주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친화도시

: 지방자치단체, 각계 전문가, 여성단체, 지역주민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10월 31일(수)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제4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 여성친화도시포럼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이해를 확산시키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올해 진행하고 있는 권역별 여성친화도시 포럼의 일환으로, 이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 최금숙 원장은 “이전에 열린 포럼에서는 인천시 부평구는 주민들이 함께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어두운 곳이라든가 불편한 곳을 개선하였고, 부산시 사상구는 주민들이 마을도서관을 개설을 통해 주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마을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도 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이번 포럼에서도 많은 논의가 기대된다”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행사개요>

-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4차 포럼에서는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여성친화적인 도시계획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대경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과 사무관이 “**여성친화적 광주 신야구장 건립 사례**”를 주제로, 안정선 화산한꿈틀이 대표가 “**친환경지킴이 지령이 테마 마을기업 사례**”를 주제로, 주경미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이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네트워크의 구축사례 : 광주시 복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 박준필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희 (사)가배울 대표, 김미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원우 전남매일 사회부장, 조영임 광주여성민우회 이사, 채승기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조정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가족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붙임 1. 프로그램

2. 발표자료 요약본

3. 발표자료

붙임 1. 프로그램

<프로그램>

13:30-14:00	등 록	
14:00-14:15	인사말	사회: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장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14:15-14:20	격려사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14:20-14:30	환영사	김종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송광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4:30-14:40	동영상	여성친화도시 홍보 동영상 상영
14:40-15:40	주제발표	·주제1 여성친화적인 도시계획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태원(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주제2 여성친화적 광주 신야구장 건립 사례 정대경(광주광역시 체육진흥과 사무관) ·주제3 친환경지킴이 지렁이 테마 마을기업 사례 안정선(화사한 꿈틀이 대표) ·주제4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네트워크의 구축사례 : 광주시 북구를 중심으로 주경미(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15:40-15:50	휴 식	
15:50-16:50	토 론	박준필(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희((사)가배울 대표) 김미경(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원우(전남매일 사회부장) 조영임(광주여성민우회 이사) 채승기(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조정순(광주광역시 북구 여성가족과장)
16:50-17:30	질의응답 및 폐회	

붙임 2. 발표자료 요약본

주제1. 여성친화적인 도시계획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태원(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1. 기대효과

- 여성친화도시조성을 목표로 사용자로서의 여성의 욕구를 반영한 상향식 주택단지조성을 위한 기초모델로서의 의미와 가능성을 담고 있으며, 공간적위계로 지구차원의 계획기준제시로 공간조성에 실현가능성을 제안하고 있음.
- 여성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편안하며 보육친화적 주거공간이 조성된다면, 환경결정론관점에서 저출산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서의 주택단지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단지내부적으로는 여성친화적 시설이 내부공간에서 건축적 실현을 통해 단지계획적 접근과 건축단위접근이 동시에 실현되어, 지구단위-건축단위-실내 및 부속장치시설단위로 공간적 위계가 조화를 이루어야할 것임.
- 본 여성친화형 도시조성 계획요소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 접근이며 추가적으로 운영관리적 측면의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이 추가된다면 보다 여성친화성의 실현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2.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과의 연계

- 여성친화주택단지조성 개념모델은 도시계획적 관점과 건축계획적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지구차원의 매개적 계획으로서의 강점을 가지며, 여성친화성을 도시단위로 확산할 수 있는 실천적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짐.
- 여성친화도시는 대규모 신도시로 전격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어려우며, 기존 도시계획시스템에 여성친화성을 융합하는 것이 현실적임. 그러한 관점에서 지구차원의 여성친화형 주택단지조성을 위한 개념모델은 도시정책적 실현성을 내재하고 있음.
- 향후 주택단지계획이 가지고 있는 단위계획으로서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지구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교통, 고용, 여성복합시설에 관한 계획적 대응도 필요함. 따라서, 복수의 주거단지와 연계된 지구단위계획적 접근이 이루어져야함.
-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단지계획적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의 세부화가 뒤따라 이루어져야하며, 끊임없는 지속적인 통합과정이 필요함
- 향후 주택단지계획의 구상과 계획 및 설계, 시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으로서의 여성참여, 전문가로서의 참여를 통해 여성친화성을 고양할 수 있는 젠더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임.

3. 여성친화도시의 사업화(실행)모델의 구축 필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은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주택단지조성 개념모델로서, 보편성을 바탕으로한 일반모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일반모델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화모델로의 분화 및 실행모델의 설정을 통해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 대응하는 사업모델의 실현가능성을 강화할 필요성 즉, 대상지 특성에 따라 신개발유형, 재개발유형의 모델을 주택점유유형에 따라 임대와 일반분양형 모델을, 단지특화정도에 따른 유형 등으로 다양한 실행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정책적 여건, 물리적 대상지 특성에 대응하는 사업화모델의 구축을 통해 실제 시범사업의 확산 및 적용을 확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실현성을 제고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획요소 및 개념모델은 여성친화주택단지조성을 위한 기준이자 개념모델이며, 또한 주거단지의 여성친화성을 평가하는 평가기준모델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며, 기존 주택단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도 활용이 가능함.

-특히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감에 휩싸인 현실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실행력 강화는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치유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환경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적 관점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은 생명력 넘치는 도시로의 전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정이라 할 것임.

주제2. 여성친화적 광주 신야구장 건립 사례

정대경(광주광역시 체육진흥과 사무관)

광주광역시에서는 10월 31일 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포럼에서 광주야구장 건립공사를 여성친화도시 건설 사례로 발표하였다. 광주시는 ‘시민이 주인 되는 아름다운 야구장 건설’을 목표로 편리한 야구장, 친환경 야구장, 문화복합 야구장, 시민중심 야구장 등 네 가지를 건립 콘셉트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편리한 야구장의 개념은 성별, 연령,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사용 환경을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UD)을 도입하여 ‘여성 친화형 야구장’으로 건립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 야구 관람객의 수는 2011년 39.2%에서 2012년 40.8%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이 야구장을 찾는 주요 동기로 응원 및 야구장 분위기, 여가선용, 야구 자체의 매력 등을 꼽고 있는데 기존 남성 위주의 야구장 설계에서 여성들의 취향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광주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새 야구장을 여성 친화형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내용에 열린 스포츠 공원 조성, 관중친화형 야구장, 박진감 넘치는 관람환경 조성, 다양한 이벤트석 도입 등을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야구장 경계의 기존 담은 모두 철거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산책, 가벼운 운동, 휴식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야구장의 방향을 동북동향으로 결정함으로써 햇볕에 민감한 여성들을 배려하였다. 8미터 폭의 콘코스 도입으로 이동편의는 물론 피난, 안전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수유실, 놀이방, 장애인 시설 등 다양한 여성·유아·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야구장에 대한 무장애 ‘최우수등급’을 목표로 시공하게 된다. 시는 지난 10월 26일 설계도서에 대해 무장애 최우수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새 야구장에는 여성관중의 증가를 고려하여 여성화장실의 비율을 남성 대비 1.17배 이상으로 설치하여 고질적인 여성화장실 문제를 해결하였다. 관중석의 배치는 필드에 가장 가깝게 배치하여 박진감 넘치는 경기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연인, 가족, 어린이 동반 관중 및 단체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관람석을 배치함으로써 여성 및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붕 전체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빗물이용설비, 지열이용시스템, LED 조명등 사용, 태양열 급탕설비 등을 채택한 친환경 야구장으로 건설한다. 광주시는 여성친화형 야구장 건설로 여성이 행복한 광주, 모두가 평등한 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구장은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오는 2013년 12월 말 완공되어 2014년 시범경기부터 일반에 공개되게 된다.

주제3. 친환경지킴이 지렁이 테마 마을기업 사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주민카페 ‘화사한 꿈틀이’

안정선(화사한 꿈틀이 대표)

1. 마을기업 화사한꿈틀이 소개

마을기업 화사한꿈틀이는 2011년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마을기업 사업계획안이 채택되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화사한꿈틀이는 화정동을 중심으로 땅을 건강하게 하는 지렁이를 테마로 녹색생활 실천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광주문화유랑단

화사한꿈틀이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에 있는 몇몇 아파트에 흩어져 사는 주민들이 모여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문화를 공유하는 작은 공동체 모임, 광주문화유랑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삭막한 곳이지만 유랑단 모임을 통해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 지렁이 키우기

광주문화유랑단은 우연한 기회에 지렁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렁이학교를 열어 지렁이에 대해 배우고, 집집마다 지렁이를 분양받고, 지렁이 연구소를 열어 지렁이를 키우면서 관찰기록지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지렁이를 키우는 것은 생활을 바꾸는 생활운동입니다. 지렁이는 음식쓰레기 처리 도구가 아니라 먹을 만큼 구입하여 조리하고,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처리할 수 없는 찌꺼기들을 분해해주는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지렁이는 음식물이 썩어 땅을 오염시키는 현상을 막고 땅을 살려주는 지구의 살림꾼입니다. 지렁이는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4. 기대와 바람

저는 집에서 생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지렁이를 아파트 집집마다 키우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그날이 오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어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이고,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집집마다 지렁이가 내놓은 분변토로 상추도 키우고 키운 상추를 이웃과 나누어 먹는 행복한 도시 생활이 그리 멀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주제4.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네트워크 구축사례: 광주시 북구를 중심으로

주경미(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과거에는 마을이 아이를 키웠다. 대가족제도로 식구들이 함께 아이를 볼보기도 하고 동네사람들과 집 주위 마을환경이 교육공간으로 함께 아이들을 키워 왔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핵가족화, 맞벌이가구 증가, 마을공동체가 해체되어 아동보육은 전적으로 가정의 책임인 상황이다. 특히 여성은 양육의 주책임자가 되어 일과 양육 중 선택을 하여야 하는 현실이기도 하며 더구나 저소득층 여성은 양육의 문제 때문에 임시직, 파트타임, 부업 등 불안정고용을 선택하게 하는 상황이 된다. 과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전적으로 여성만의 몫일까? 아니다. 남·녀 누구나 일하고 함께 돌보며 특히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공동체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광주여성노동자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슬로건으로 마을보육 공동체운동을 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특성으로 맞벌이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평균을 밑돌고 국공립보육시설은 2.3%로 공공성의 매우 취약하며 시설중심의 보육정책은 보육사각지대를 낳고 있다. 특히나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이 밀집된 주거지 부근에 아동복지 및 문화, 편의시설이 필요하지만 아동관련 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 아이들은 부모의 귀가 때까지 혼자 지내든가 학원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저소득 맞벌이가구가 밀집된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안전한 아동돌봄과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을전체가 안전한 보육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마을보육센터는 2010년도는 2곳, 2011년도 4곳, 2012년도에는 7곳의 “새싹돌봄마을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본회의 지자체에 다양한 정책활동으로 2012년도에는 광주광역시 ‘위킹맘지원사업’후원으로 새싹돌봄마을보육센터를 개소하였다. 마을보육센터는 5~10세 아동들이 주 대상으로 오후2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영되는데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함께 모여 놀고 학습도 하고 공동체를 배워가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로 보육품앗이도 이루어지고 주민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주민강좌, 모임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점점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을마다 특색을 살려 영화제, 마을축제, 장터마당, 문화잔치 등 다양하게 주민사업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광주여성노동자회는 마을공동체 보육과 돌봄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남녀가 함께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며 지자체의 정책화를 연구 중에 있다. 이제 돌봄은 누구나 함께 나누고 협력하고 배려하여 돌봄공동체로부터 피어날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